



무항생제 닭고기, 소비자들은 선호... 농가들은 어려워해
인증기준만 존재, 표준화된 사양체계 만들어지지 않아

병아리 품질, 무항생제 사육 성패 좌우 육계부분은 무항생제 사육 도울 컨설팅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아



김재민 기자
축산경제신문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가 가격과 맛 중심에서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추세로 급속도로 전환되면서 축산물 소비에도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불기 시작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열풍부터 닭고기 부분 비선호 부위였던 가슴살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결코 맛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도 증가로 대형마트마다 친환경 농축산물 코너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의 소비도 서서히 늘면서 최근 무항생제 축산물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있는 선도 농가들의 경우 생산성 저하 및 비용증가로 인해 외면 받았던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뛰어 들기 시작했고 친환경 축산물에 정부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키우기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많은 농가들이 이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우와 양돈, 채란업계의 경우 전문수의사나 사료회사 등과 손잡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성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양계분야의 경우 육계는 계열화된 산업의 이점을 등에 업고 제품화에 나서면서 친환경 닭고기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농장규모화가 마무리된 채란분야도 무항생제 계란이 계란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제 품화 부분에서는 축산물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장의 규모화와 계열화 그리고 계열주체의 규모화로 인해 친환경 양계산물은 점차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는 포장유통이 되고 있는 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친환경 축산물 등 각종 인증에 대한 표기가 용이해 소비자들에게 정보 전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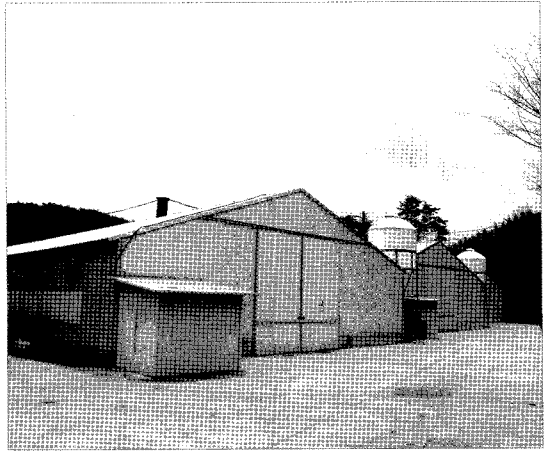
무항생제 닭고기 사육방법 기술 보급 미흡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단 양계산물이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달리 농장들의 상황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는 다른 축종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000년대 초 유기 및 무항생제축산물 개념 및 기준을 정부가 고시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인증 규정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농가들의 사육방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기술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민간단체 중심의 유기농산물 인증 및 생산이 오랫동안 진행돼온 경종분야와 달리 규모화·전문화로 치달은 축산분야는 관행사육 방법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깊어 있게 진행되지 못해 정보 부재로 인한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 여러 품목 중에서도 육계부분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데 일부 육계농가들은 어렵게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능가로 인증을 받고도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사가 늘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사육농가들이 다른 축종에 비해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육계가 다른 축종에 비해 질병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일관사육의 경우 농장의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육계부분은 계열업체나 부화장으로부터 원자재인 병아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질병이 부모대로부터 난계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닭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원종 단계부터 철저한 질병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 종계는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아리를 받느냐가 무항생제

사육을 지속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감안해 자연실록이라는 무항생제 닭고기를 출시한 하림의 경우 몇 년 전부터 2008년부터 전문수의 컨설팅을 참여농가에 한해 실시하고 있지만 농장별 상황이 틀리고 종계부분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서 일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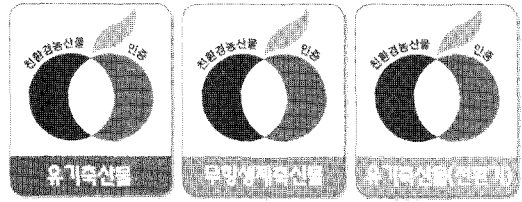
특히 항생제를 대체할 만한 기능성 물질의 공급이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한 사료 등의 개발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만 항생제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충남지역에서 무항생제 닭을 키우고 있는 한 농가에 따르면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면서 약값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이 들어가고 폐사도 2배로 꺾중 뛰었다며 체계적으로 관련 대체의약품을 선발해 주지 않고 약품상이나 입소문만을 갖고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멘토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집단이 농가들 주변에 없다는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무항생제 생산농가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국내 농축산분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의 경우 한우농가들의 무항생제 인증을 위해 농촌진흥청, 전남도농업기술센터, 순천대학 등이 참여하는 순천대 전



남친환경한우특화산학연합협력단(단장 이상석 교수)이 꾸려져 집중적인 농가 교육 및 개별 컨설팅이 이뤄지는 등 타 축종의 경우 산학연합협력체가 꾸준히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및 업계에는 양계를 전공하는 인력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산학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양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여기에 계열업체들이 사료는 공급하고 있지만 전문사료회사에 비해 지원이나 컨설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계나 양돈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사료공급업체들의 컨설팅에 의해 무항생제 생산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열주체들도 전문 사료업체 이상의 전문 인력 확보 및 무항생제 생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들의 멘토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가들의 사육기술을 끌어올릴 전문 교육기관이나 과정이 만들어져 무턱대고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항생제 사육을 위한 전문교육과 농장인증을 연계하는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크린병아리 생산을 위해 종계 부화부분 정상화 로드맵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